효천 테마 독서 6학년 "선거"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딸기 우유 공약〉
문경민 / 주니어김영사

전교어린이회장에 도전한 나현이의 공약은 급식 우유를 딸기 우유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선거 운동원을 모집하는 것조차 쉽지 않던 나현이가 적극적으로 유세하는 시은이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은이가 다른 후보 친구들에게 사퇴를 하라고 요구하는 녹음이 방송실에 퍼지자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유라와 덕주와 함께 공약에 대해 다시 고민하면서 회장 도전을 멈추지 않는 나현이는 과연 회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열두 살, 대통령 선거에 나가다!〉
댄 거트먼 / 제제의숲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른들이 만들었으니 이제 어린이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저드슨 문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작전. 어린이가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냐고 어른들은 말하겠지만 어른들도 하는 정치는 어린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통령 후보가 된 저드슨 문은 어떤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누가 뽑나요?〉
정관성 / 노란돼지

선운이와 선아가 아빠에게 선거일인데 투표를 안 하냐고 물어보았어요. 아빠는 사전투표를 했다고 말합니다. 알쏭달쏭한 얼굴을 한 아이들에게 아빠는 선거와 투표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궁금한 것이 많은 아이들은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빠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선거 이야기를 만나보러 가볼까요?

〈비밀투표와 수상한 후보들 〉
서해경 / 키큰도토리

오성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세 명의 후보. 보호당 김수현, 주민당 최민중, 무소속 표만복 후보에 대해 특별호를 만들기 위해 인터뷰를 시작한 통신문 기자들은 수상한 점을 찾아냅니다. 행복한 오성시를 위해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은 민주주의에 과연 맞는 것들일까요? 의문이 생기는 후보들을 보고, 과연 오성시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